

한국소설문학에 반영된 신화적 양상

서대석*

1. 서론

신화의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제기되어 있다. 우주나 국가의 기원과 같은 원초적 시원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제전에서 행하던 의식의 언어적 표현이라든지, 인간의 가장 심층에 자리잡은 집단 무의식의 산물이라든지, 집단의 규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정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신화는 일반적으로 신성시되는 이야기로서 신성성을 본질로 한다. 신성시되는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신화의 본질에 관한 물음이기보다는 신화의 구체적 실상에 관한 문제로서 신화의 개념이 규정된 다음에 논의될 문제라고 본다. 신성성은 대체로 신화를 전승하는 집단의 문화의식이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데 신성성을 드러내는 문화적 장치가 바로 祭典이다. 즉 제전을 통해서 신화가 신화로서 인식되고 신성성이 부여되며 규범적 기능을 확보하게 된다.

우리의 신화는 건국신화와 무속신화가 중심이 되는데 건국신화는 『삼국유사』 등 문헌에 한역되어 기록으로 전하고 무속신화는 무속의식에서 노래로 불려지는 신의 이야기이다. 건국신화는 단군신화와 주몽신화와 같은 북방신화와 혁거세신화와 수로왕신화와 같은 남방신화로 나누어진다. 건국

* 본과 교수

신화는 대체로 건국시조의 출생과정, 시련과 극복, 건국과 즉위 그리고 시조의 혼례와 시조의 신이한 죽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방신화는 시조 출생 이전에 시조 부모의 혼례가 먼저 등장하고 시조의 출생과 즉위 등이 나타나는 반면 남방신화는 시조의 탄강과 즉위, 그리고 시조의 혼례가 이어서 나타난다.

무속신화는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전국적 유형과 특정지역에서만 전승되는 지역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전국적 유형에는 <당금아기> <바리공주> <칠성풀이> 등이 있고 지역유형으로는 중부지역의 <성조신가> 호남지역의 <장자풀이> 제주도의 <세경본풀이> <이공본풀이> 등을 들을 수 있다. 이들 자료 중 전국적 유형은 시원적으로는 소설의 성립보다도 이른 시기에 형성되어 전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신화가 소설에 반영된 형태는 여러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소재 차원의 반영을 생각할 수 있다. 신화 전편이나 신화의 일부를 소설의 소재로 사용한 경우이다. <주몽신화>나 <바리공주>를 소설로 다시 쓸 수도 있고 무속신화의 내용을 소설의 삽화로 삽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신화로서의 특성이 살아남기 어렵다. 서사문학의 소재는 설화나 소설이 모두 공용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인물의 행위와 사건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신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설화 전반과 서사시나 소설에 두루 공통되는 서사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에 수용된 소재 차원의 신화 모습을 따지는 일은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기로 하겠다.

다음에는 신화에 담겨진 전승집단의 정신이나 의식의 수용을 생각할 수 있다.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인본주의가 어떤 소설에서도 발견된다든지, <주몽신화>의 투쟁정신이 어떤 소설에서도 확인된다는 식의 추상적인 정신세계의 공통성을 지적하는 일이다. 이러한 지적이나 해석은 해석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학문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어떤 의식이나 정신을 신화에서 분석 추출하는 자체가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되기 쉽고 다시 소설을 분석해서 연결짓는 과정도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시각도 이 자리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대체로 신화로부터 소설로의 계승이 분명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서사유형의 차원이다. <주몽신화>에서 추출되는 '영웅의 일생'이라는 전기적 유형과 柳花의 생애로부터 정형화되는 혼사장애를 통한 여성수난, 그리고 용녀의 재생에서 찾아지는 통과 의례와 관련된 서사유형 등이 고전소설이나 신소설, 또는 현대소설 속에 어떻게 수용되고 굴절되어 있는가를 밝혀서 신화와 소설의 관계를 논하는 작업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학문적 과제이며 비교적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의 폭이 적은 일이라고 본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의 학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기로 하겠다.¹⁾

2. 주몽의 일생의 수용양상

<주몽신화>에서 정형화된 영웅의 일생은 신성한 혈통이면서 비정상적 출생, 시련과 극복, 성장지로부터 이탈과 투쟁, 투쟁에서의 승리와 즉위로 요약된다. 이러한 남주인공의 일생은 피네깃도, 홍길동, 소대성, 조용, 유충렬 등으로 계승되면서 서사무가와 소설의 세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적지 않은 굴절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모를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출생, 시련, 성공으로 나누어 조감하기로 한다.

2.1. 출생과정

주몽은 천신인 解慕漱와 수신인 河伯女의 결합으로 탄생되었다. 해모수는 청하에서 柳花를 보고 후사를 이을 아들을 둘만하다고 생각하고 강제로 감금한다. 이에 대해 하백이 청혼도 없이 무례하게 감금함을 항의하자 五龍車를 타고 하백의 나라에 이르러 혼례를 올린다. 하백은 柳花를 해모수와 함께 보내려고 하였으나 해모수는 柳花를 남겨둔 채 비녀로 革輿를 꿰고 탈출한다. 하백은 노해서 柳花의 입술을 늘리고 우발수로 내친다. 柳

1) 이 글에서 참고한 주요 논저를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金烈圭, 韓國民俗와 文學研究 (서울: 일조각, 1971),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서울: 지식산업사, 1977),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85).

花는 어부에게 구출되어 금와에게 인도되고 금와왕의 궁중에서 햇빛을 받고 잉태하여 하나의 큰 알을 낳고 알이 부화되면서 주몽이 태어난다. 이처럼 주몽은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 柳花 사이에서 알로 태어난다. 이는 천신과 수신에 결합에 의하여 신성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는 의미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신이한 잉태과정과 탄생과정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함께 가진다.

그런데 부여 시조 동명의 출생에 관해서 중국의 사서인 「論衡」 「魏略」 등에는 탁리국 또는 薰離國의 왕의 시비가 천상의 鷄子와 같은 기운을 받고 잉태하여 알을 낳았고 이 알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가 곧 부여를 세운 동명이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유화에 대응되는 동명모가 왕의 시비로 신분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해모수에 대응되는 존재가 천상에 계자와 같은 기운으로 의인화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는 점이 국내 기록과 다른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기록은 柳花를 구출한 동부여의 금와 집단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금와왕에게 柳花가 어떤 존재이 있는지는 분명하게 밝힌 기록이 없으나 왕궁에 거처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궁녀와 비슷한 신분의 왕의 시비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해모수의 자식을 잉태하였기에 당시 부여왕인 금와와는 혈통이 다른 아이를 잉태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해모수가 천제 즉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하늘의 달과 같은 기운을 받고 잉태했다고 쓴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동일한 이야기라도 자국의 신화로 서술될 때와 다른 나라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한 기술일 경우에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자국의 신화로서 기술할 때는 신성한 혈통이 강조되고 신이한 회임과 출산에 역점이 있으며 남의 나라의 관한 기술일 때는 부계의 혈통이 다르다는 점과 출산부터 괴이했다는 비정상적 상황에 중점이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비정상적 잉태와 출생은 조선조 중기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에 수용되어 있다. 홍길동은 홍판서와 시비 춘섬의 결합으로 탄생되었다. 홍길동의 부계 혈통은 판서라는 고위관료로서 신성하다 할 수 있으나 모계 혈통은 신성할 것이 없다. 그대신 홍길동의 전신이 태몽을 통해 청룡으로 암시되고 있는데 이는 홍길동이 용신, 또는 수신의 후예라는 의미를 갖는다. 수신은 천신과 함께 우리 민족이 가장 신성하게 생각한 존

재이다.

임태과정에서도 상전과 시비의 결합이라는 비정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몽의 신이한 회잉과정과는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홍길동전>에서 길동을 시비의 소생으로 설정한 것은 <동명신화>에서 동명의 모친을 시비로 설정한 것과 같다.²⁾ 그러나 주인공의 모계가 부계에 비하여 열등하다는 것은 신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동명의 모친이 부여왕의 시비라는 기록이 있으나 동명의 부친은 부여왕이 아니고 하늘의 기운으로만 나타나고 있기에 부친과 모친의 신분적 우열을 대조적으로 언급한 기록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신화에서는 주인공의 혈통이 현재 집권한 집단과 다르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홍길동전>에서는 신분적 결합을 선천적으로 안고 태어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비정상적 임태로 인해 박해와 시련이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주몽신화> 및 <동명신화>와 <홍길동전>이 같은 성격을 가진다.

한편, 소대성, 유충렬 등의 인물은 출생과정에서의 비정상은 제거되고 양친이 모두 누대 명문거족의 가문으로서 고귀한 혈통만이 강조되고 있다. 이들은 임태 계기가 정상적 계도를 벗어난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주몽이나 홍길동과는 달리 기자치성을 드린 후 정실 부인의 몸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다. 혈육이 없는 고귀한 가문에서 신이한 태몽을 꾸고 임태하고 외아들로 태어나며 출산시에 신이한 징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홍길동과는 다른 신성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홍길동이 비정상적으로 출생된다는 것은 이미 기존 체제에 순응하지 못할 인물이라는 서사적 복선이 예비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조용이나 유충렬이 정상으로 출생하고 존귀한 존재임이 강조된 것은 기존체제를 수호하는 인물임을 암시하는 점이다.

주인공이 고귀한 혈통으로 신이한 탄생을 한다는 신화소는 고전소설 주인공까지 이어지고 현대소설로 계승된 모습은 찾기 어렵다. 고전소설에서도 영웅소설 계열에서 공식적으로 수용되었고 <홍부전>과 같은 평민의식을 반영한 작품에서는 등장인물의 출생과정 자체가 생략되고 있다. 현대소설에서 영웅적 인물의 탄생과정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작가의 의식이

2) <東明神話>는 중국 사서에 기록으로 전하는 부여국 시조신화를 말한다. <주몽신화>는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신화로서 <동명신화>와는 내포적 의미가 다르다.

나 시대의식이 영웅적 개인에 의해 역사가 창조된다는 영웅사관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영웅적 인물은 운명적으로 결정되며 후천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중세적 사고를 부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2.2. 시련과정

시련의 성격을 보면 주몽은 비정상적 출생이라는 생래적 결함으로 인해 성장지에서 기득권을 확보한 집단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柳花가 알을 낳자 금와왕은 사람이 알을 낳다니 상스럽지 못하다 하고 마굿간에 버렸으나 말들이 밟지 않았고 산 속에 버렸으나 鳥獸가 보호하였다. 주몽이 알로 태어나서 받는 시련은 부계 혈통이 다름으로 인해 야기된 타 집단의 박해라고 볼 수 있다. 홍길동 역시 혈통으로 인한 박해라는 점은 주몽신화와 상통하나 모계의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점이 다르다. 아버지가 같으면서 아버지의 처첩들이 자기들 소생의 子宮家族³⁾ 단위로 대결한다는 점에서 길동이 받는 박해는 모계혈통의 문제로 야기되는 박해이다.

소대성은 자기의 혈통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처가에 기식하면서 처가 권술에게 학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대성은 장인의 知人之鑑으로 발탁이 되어 처가살이를 한다. 그러나 장인이 죽자 장모와 처남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소대성이 겪는 시련은 주몽의 시련과는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자기의 혈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아내의 가족으로부터 받는 박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모수가 하백에게 질책을 당하고 천제의 아들로서의 신성한 능력을 시험당하는 등 처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성격과는 연결될 수 있다. 부계 혈통 때문에 야기되던 신화의 박해가 소설에 이르러서는 부계 혈통에서 모계 혈통으로 다시 처가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본다.

유충렬, 조웅 등의 인물은 부친과 정적이었던 인물의 탄압으로 박해를

3) 子宮家族이란 한 어머니의 소생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일부다처일 경우 아버지의 혈통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의 가족이지만 어머니의 혈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여러 개의 자궁가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받는데 이는 박해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점에서는 주몽신화와 연결되나 박해의 공간이 가정이 아니고 조정이라는 점에서 <홍길동전>과는 차이점을 나타낸다. 조정을 배경으로 권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야기되는 주인공의 시련은 정치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는 신화와 공통된다. 주몽이 금와왕의 아들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정치적 박해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박해의 원인도 비범한 영웅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신화와 소설은 공통점을 가진다. <유충렬전>에서 정한담은 신기한 영웅이 유심의 집에 있다는 옥관도사의 말을 듣고 국권쟁탈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유심의 집에 불을 놓는 등 충렬에게 박해를 가한다. 이는 주몽의 능력이 비상함을 꺼려하여 박해를 가하는 금와왕 일족의 행위와 상통된다.

이밖에도 주인공의 시련을 통한 성장은 매우 흔히 나타나는 요소로서 모든 서사문학의 보편적 현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다른 뛰어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다른 시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은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어 현대소설에까지도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 문제는 통과제의와 관련하여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2.3. 입공과정

입공과정에서 주몽은 생장지를 이탈하여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투쟁에서 승리하여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다는 점에서 주체적 성격을 가진다. 주몽은 스승에게 배우지 않고도 활을 잘 쏘았고 松讓과의 시합에서 백보 거리에 옥지환을 쏘아 적중시켜 승리했으며 흰고라니를 잡아 주술을 걸어 비를 오게 하여 송양을 항복받는 등 생래적인 신통력을 발휘하여 국가를 건립하고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로 고구려의 시조신으로서 기리 추앙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홍길동 역시 스승에게 배우지 않고도 둔갑법 등 신이한 법술을 부릴 줄 알았으며 활을 잘 쏘았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특재를 죽이고 활빈당의 행수가 되었으며 망탕산에서 요괴를 활로 쏘아 퇴치하고 백소저와 조소저를 구출하여 아내를 삼았으며 울도국을 공략하여 항복을 받고 스스로 울도국 왕이 된다. 이처럼 홍길동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이

한 능력을 발휘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지를 이탈하여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다는 점에서는 주몽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애적 능력 발휘와 주체적 입공의 성격은 <소대성전>이나 <유충렬전>에 이르러서는 많은 변모를 보인다. 소대성은 천자를 위해 싸우고 노왕이라는 봉작을 받는다. 스스로를 위해 싸우고 그 댓가를 자신이 모두 차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종속적 영웅이라 할 수 있다.⁴⁾ 그러나 노왕이라는 벼슬이 하나의 봉토를 다스리는 제후로서 통치자의 성격을 가지기에 투쟁의 공로로 통치자인 왕이 된다는 점에서는 신화의 성격을 어느 정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유충렬이나 조용 역시 소대성과 같이 천자를 위해 싸우고 왕작을 받는다. 유충렬이 받은 연왕이라는 왕작은 천자의 신하라는 종속적 성격이 강하여 주체적 영웅성이 퇴색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유충렬은 신하이면서도 천자보다 우월한 능력의 인물이라는 점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천자는 유충렬의 도움으로 상실했던 통치권을 다시 찾았고 파괴된 가정을 복구할 수 있었다. 천자가 유충렬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신하이기에 과소평가되기 쉬운 유충렬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웅소설의 주인공의 변모에 함의된 복합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3. 혼사장애와 여성수난

한편 <주몽신화>에서 柳花의 일생으로 요약되는 혼사장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여성의 수난과 시련은 여성을 주인공으로하는 서사무가와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로 계승되었다.⁵⁾ <제석본풀이>의 당금아기, <숙향전>의 숙향, <춘향전>의 춘향, <화세계>의 수정, <추월색>의 이정임,

4) 이러한 점은 조동일, “영웅의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0, (1971)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5) 서대석, “제석본풀이 연구”,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탁류>의 초봉, <무정>의 영채등과 같은 인물의 생애에서 이러한 여성 수난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柳花는 해모수에게 감금되고 하백에게 추방당하는 시련을 겪는다. 그러나 주몽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주몽이 국조가 되자 국모신으로 배향되는 영광을 갖는다. 즉 柳花의 일생은 위대한 아들을 낳기까지 혼사장애에 따른 시련을 겪고 아들을 낳아 영광을 누리는 어머니로서의 일생이다. 유향의 출산은 바로 혼사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당금아기 역시 柳花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아들을 양육한 공로로 영광스러운 신직을 받는 존재이다. 스님의 일방적 접근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잉태했다는 죄로 부친에게 추방당한다는 점에서 柳花와 당금아기는 상통한 성격을 갖는다. 또한 柳花가 고구려의 국모신으로서 주몽신과 더불어 국민적 제향을 받았다는 주몽에게 오곡의 종자를 주어보낸 사실에서 곡모신이면서 농경 생산신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당금아기가 마을신이면서 지모신이며 산육신이면서 동시에 농경생산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상통하고 있다. 다른 점을 굳이 찾아본다면 柳花는 아들인 주몽에 의해 신으로서의 영광이 주어진 반면 당금아기는 남편인 스님에 의해 신직이 주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결혼과 출산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여성의 수난이라는 신화적 원형이라는 공통성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같은 건국신화나 무속신화에서 발견되는 혼사장애와 관련된 여성수난의 서사모형은 고전소설 <숙향전>, <춘향전> 등에 반영되어 있다. 숙향이나 춘향은 부모의 허락없이 스스로 인연을 맺었고 그로 인해 시련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柳花와 상통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나 시련을 부과하는 존재는 차이를 보인다. 숙향은 난중에 부모를 잃고 도적에게 구출되고 장승상의 양녀로 있다가 사향의 음해를 받아 누명을 쓰고 물에 투신하였다가 용녀의 구함을 받고 다시 갈대 밭에서 화재를 만났으나 화덕진군에게 구출된다. 숙향을 음해한 사향이라는 인물은 숙향과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동료이다. 그러나 숙향의 시부가 될 이선 부친이 낙양원에게 부탁하여 숙향을 잡아다가 징치하는데 이 때 낙양원은 바로 숙향의 생부인 김전이란 점에서 부친에 의한 징치나 박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백은 柳花의 잘못을 알고 징치하였고 김전은 숙향이 자기의 딸인줄 모르는 상황에서 상급 관료의 명을 받고 숙향을 치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춘향을 박해한 자는 변화도로서 춘향과 결합하기를 바라는 인물이다. 따라서 유화의 경우처럼 부친이 징치한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춘향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관기였던 인물이기에 신임 사또인 변화도는 관장으로서 부친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부모 모르게 결연을 맺은 여인이 부친에 의해 징치를 당한다는 신화적 관념이 춘향전에도 잠재해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신소설이나 현대소설에서도 여성 주인공이 필연적 이유 없이 부모에게 저항하고 배필을 만나기 위해 가정을 이탈하여 고난을 겪는 여성의 이야기가 많다. <花世界>에서 수정은 구참령과 혼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친이 권하는 혼처를 거부하고 가출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며 구참령을 찾아 결합한다. 그런데 구참령이란 인물은 당초 군의 참령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수정의 부친을 협박하여 수정과 혼약을 맺은 인물이다. 여성 주인공이 이 같은 부정적 인물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의 뜻을 무조건 거스르면서 가출하여 온갖 수난을 겪는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관행으로 보아 자연스러운 전개로는 보기 어려운 점이다. 구참령과 수정의 관계는 해모수와 柳花의 관계와 상통하는 성격을 지닌다. 신랑측의 강요로 혼약이 성립되고 신부감이 부친과 갈등하면서 가출을 하고 처음 정혼자를 찾아 결합에 성공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수정이란 인물은 개화 사상을 내세워 부모가 주혼하는 인습에 저항하는 신여성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나 이는 柳花 수난으로 대표되는 '여성수난'의 신화적 원형이 개화기의 신소설이란 서사양식 속에서 새롭게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秋月色>에서도 여주인공 정임은 당초의 정혼자 영창과의 혼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부모와 대립하여 가출하여 온갖 수난을 겪다가 영국에 유학한 영창을 만나 결합에 성공한다. 여기에서도 柳花의 혼사장으로 인한 수난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수의 <무정>에 등장하는 영채의 생애에서도 유화의 생애와 같은

서사모형이 발견된다. 영채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제자인 이형식과 정혼한 인물로서 투옥된 아버지를 구출하고자 기생이 되고 온갖 고초를 겪다가 배학감에게 정절을 빼앗기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신여성 병옥을 만나 신문명의 세계를 자각하고 유학에 길에 올라 새 삶을 찾는 인물이다. 영채는 부친을 구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부친과 갈등 관계에 있는 유화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부친 때문에 수난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유화의 수난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 또한 정혼자 이형식과의 결혼에는 실패하기에 결혼과 출산을 위해 겪는 신화주인공의 수난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지만 영채는 외국에 유학을 한 뒤 이형식이 지향하는 문명세계의 한 사람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이형식과 하나의 세계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남녀가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를 공유하는 것이나 신교육을 받아 문명사회를 공유하는 것이나 공유하는 세계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채만식의 <탁류>에서 여주인공 초봉이 겪는 수난도 柳花의 수난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초봉은 남승재를 사랑하면서 부친의 빚 때문에 바람둥이 고태수와 결혼하게 되고 형보라는 인물에게 겁탈당하고 고태수가 유부녀와 간통하다가 맞아 죽은 후 가출하여 박계호의 첩이 되었다가 다시 형보의 방해로 헤어지고 형보와 부부가 된다. 형보의 등쌀에 견디지 못한 초봉은 형보를 죽이고 감옥을 가게 된다. 초봉의 수난은 사랑하는 인물은 따로 두고 사랑하지 않거나 원수지간인 인물 사이를 전전하면서 부부생활을 하는 삶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혼사로 인해 겪는 한 여성의 수난상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혼사장으로 인한 여성수난의 신화적 잔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통과제의를 통한 재생원형의 수용과 전개

단군신화에 나타나 있는 꿈이 옹녀로 변하는 과정은 한 존재가 통과제의를 거친 후 자기개신을 이룩하는 절차로서 정형화된 서사모형을 이루고

있다. 이를 단락별로 분절하여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1. 꿈은 사람이 될 것을 희망했다. → 갱신욕구
2. 굴 속에서 지낸다. → 분리
3.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을 먹다. → 금기와 시련
4. 꿈은 여인으로 변했다. → 갱신의 완성
5. 굴에서 나온다. → 귀환

꿈과 사람은 종류가 다른 존재로서 꿈이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한 차원 높은 세계로의 상승적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 꿈에게는 사람이 되려는 강렬한 욕구가 있었다. 이러한 자기 갱신의 욕구가 상승적 변신이나 재생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 갱신의 욕구는 제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성년식에서는 성년이 되고자 하는 미성년자의 욕구이고 입무식에서는 무당이 되려는 보통 사람의 욕구이다. 자기 갱신을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자기가 소속한 집단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다. 분리는 소속된 집단의 인식의 변화를 위해 일정기간 기존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가 있다. 차원이 다른 상승적 변신은 소속 집단의 인식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속했던 집단으로부터 일정기간 격리되어야 사회인식을 바꿀 수 있다.

분리의 방법과 양상은 제의에 따라 다르다. 성년식에서는 성년식을 주도하는 지식과 덕망이 높은 인물이 성년이 될 미성년자를 인솔하여 마을을 떠나 마을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한다. 무당이 되려는 사람은 신병이 들러 정상인의 사회에서 소외된 삶을 체험한 뒤에 내림굿을 하며 무당이 된 뒤에도 영험을 갱신하기 위해 속인의 사회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일정기간 수도생활을 하기도 한다.

시련과 금기는 갱신을 위해 겪어야 하는 고난의 관문이다. 고통을 통해 성장과 갱신을 이룰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제의를 통해 형식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획득하는 것과 같은 절차이다. 시련이 끝나면 목적인 바가 달성된다. 그리고 본래 살던 곳으로 귀환한다. 귀환과 동시에 사회인식은 바뀌어진다. 즉 꿈이 사람으로 변한 이상 꿈의 삶을 청산하고 사람으로 생활하듯이 갱신이 이루어

어지면 갱신 이전의 삶은 청산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러한 통과제의적 절차는 본래 신화에서 형성된 것으로 소설의 전개방식에 두루 수용되어 있다. 홍길동은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로 진출하면서 활빈당 행수로 자기 갱신을 이룩한다. 그리고 다시 국내를 떠나 울국왕이 되어 두번째 자기 갱신을 이룩한다. 군담소설의 주인공은 대체로 가족들과 분리되어 시련을 겪고 산사에서 도술을 배워 국난을 평정하고 높은 벼슬을 얻는다. 주인공이 가족과 헤어지고 고난을 겪다가 산사에서 도사와 함께 술법을 공부하는 것은 분리와 시련의 과정이고 국난을 편정하고 벼슬을 얻는 것은 자기 갱신을 이룩한 것이며 가족들과 재회하는 것은 본래 살던 사회로의 귀환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심청전>이나 <춘향전> 등 판소리계 작품에서도 이러한 통과제의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심청은 인당수에 빠지기 이전까지는 한 가난한 소녀에 불과하였다. 심청이 상인에게 몸을 팔아 자기가 생장한 고향을 떠나는 것은 자기 갱신을 위한 소속 집단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하고 인당수에 입수하여 용궁에서 지내다가 연꽃 속의 인물로 다시 나타남은 분리되어 금기를 지키고 시련을 견딘 후 상승적 변신을 이룩함을 말한다. 심청은 인당수에서 나온 이후 만승 왕후가 된다. 시골에 한 가난한 집 소녀로부터 왕후로 상승적 변신을 하는 것이다.

<춘향전>에서도 춘향은 남원옥에 갇혀 고난을 겪은 후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과 재회하고 신분 상승을 한다. 춘향이 변화도의 수청을 거절하고 옥고를 겪는 과정은 통과제의의 공식화된 절차에 상응한다. 춘향이 집에서 나와 관아로 잡혀와 옥에 갇히는 것은 분리이고 형장을 맞고 옥중고초를 겪는 것은 시련이며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것은 부여된 시련을 극복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상통한다. 고초를 겪은 춘향이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을 만나 부인이 된다. 이것은 기생의 딸로부터 사대부의 부인으로 신분적 상승을 하는 것이며 동물에서 사람으로 변한 웅녀의 변신과 상통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영광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러한 통과제의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데 주인공의 일생을 기술하고 있는 일생기적 소설에 특히 이러한 전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5. 결 론

이상에서 신화에서 추출되는 서사모형이 소설에 반영된 양상을 소략하게 검토하였다.

<주몽신화>에서 주몽의 일생으로 대표되는 '영웅의 일생'이라는 전기적 유형은 각 시대에 상응하는 서사문학의 양식으로 재창작되면서 발전적 전개를 해 왔다. 신화적 성격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는 작품이 <홍길동> 전으로서 주인공의 생래적 능력 발휘와 주체성을 바탕으로 왕업을 이룬다는 점이 신화와 공통된다. <홍길동전> 이후의 영웅소설들은 조선조의 시대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모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天父水母의 신성한 혈통은 <소대성전>, <조웅전>, <유충렬전> 등에 이르러서는 벼슬이 높은 명문대가의 후손으로 변모되었고 비정상적 출생은 정상적 출생으로 바뀌면서 기차치성의 결과 천신이나 수신과 관련되는 신이한 존재가 회잉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창업의 일은 국가를 수호하는 守戍의 일로 바뀌고 내란을 평정하고 외적을 격퇴하는 일로 처리되었다.

<주몽신화>에서 유화의 일생으로 대표되는 '여성수난'의 서사모형은 소설 속에 여성 주인공의 삶 속에 용해되어 있었다. <숙향전>, <춘향전>의 고전소설, <화세계>, <추월색> 등의 신소설, <무정>, <탁류> 등 현대소설에서 이러한 서사모형을 찾을 수 있었다. 고전소설에서는 부녀갈등이 약화되거나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비하여 신소설에서는 부모는 인습을 지키는 악한 인물로, 딸은 개화를 지향하는 착한 인물로 설정되어 부모와 딸이 보수와 개화를 대변하는 대립상을 보이고 있었다. 현대소설에서는 부녀 갈등보다는 사회악과의 대결이나 생존을 위한 가난과의 싸움 등으로 중심적 갈등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군신화>에서 용녀의 변신과정을 통해 추출되는 통과제의적 서사모형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영광을 차지하는 일대기 소설 작품에 널리

용해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홍길동전>을 비롯한 군담소설류와 <심청전> <춘향전> 등의 판소리계 소설 등 고전소설에서 이러한 모형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하지 않은 신소설이나 현대소설에서도 통과제의적 서사모형은 적지 않게 나타나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신화와 제의가 사회규범으로서 통제 권능을 가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